

칼럼

조합원과 함께, 건설업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 건설공제조합 50주년 기념에 부쳐 -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1963년 10월 21일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소재 진명여고 강당인 3·1당(三一堂)에서 228명의 조합원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제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성환 건설공제조합 초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 가운데 건설업계가 1위를 차지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설은행을 꿈꾸었던 건설업계에 건설공제조합의 탄생 의미는 컸다. ‘건설업자의 출자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 부조 성격의 협동 조직체’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건설 금융제도의 출현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은 셈이다.

그리고 정확히 50년이 지난 2013년 10월 21일에는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조합 직원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부른 ‘넬라판타지아’가 대회의실에 울려 퍼지면서 시작된 Opening 공연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들은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을 후일담으로 전해왔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노래 가사처럼 평화롭고 정직한 세계를 같이 꿈꾸어 보

았을 듯하다. 이날 기념사에서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건설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조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었다.

이제 조합은 「건설공제조합 50년사」 발간과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를 통해 지난 50년 간의 건설금융 역사를 정리하였다. 비록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로 조합의 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조합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50년을 조합원과 함께, 건설업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이며, 최고의 종합 건설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설립 당시 보증과 용자에 국한되었던 업무 범위가 지금은 공제(보험)사업, 체육시설(세종필드골프클럽) 운영, 조합원 편의 증진 사업(건설경영연수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해외 보증 추진, 보증 신상품 개발, 공제사업 범위 확대 등 조합원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난 50년과 같이 향후 100년도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건설업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CERIK